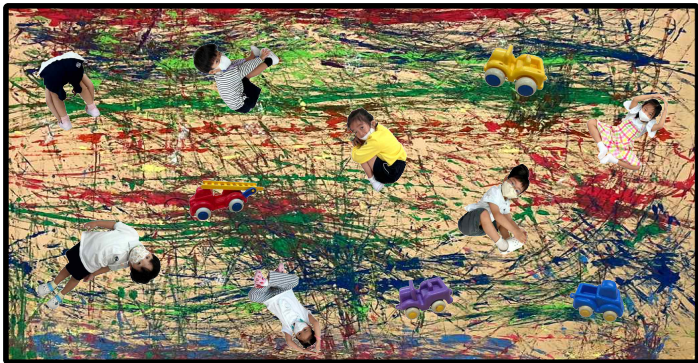


# 씽 씽 달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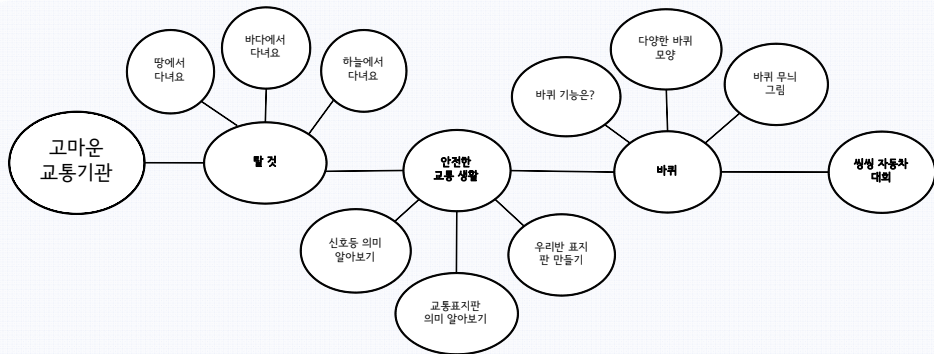


2022.8.29.~2022.10.07.  
몸튼튼반 친구들의 데굴데굴 교통놀이

## '교통기관'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몸튼튼반 유아들은 평소 자동차 놀잇감을 이용해 자동차 길 만들기, 여행가기 등 다양한 교통기관 놀이를 하며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고마운 교통기관'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8.29.~ 10.07.)



## 바깥놀이터에서 교통기관이 되어보아요

▶ 바깥놀이시간에 몸으로 다양한 교통기관을 만들어 그림자로 나타내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동수단으로 변신도 해보았습니다.

유아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교통기관의 모습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모래놀이터에서 자동차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며 자동차의 이름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트랙터로 흙을  
퍼낼 수 있어!



<몸으로 교통기관 만들기>



<나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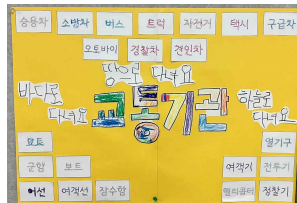
## 다양한 교통수단을 알아보아요

▶ 육상, 해상, 항공 교통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을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이동수단의 종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라고 알고 있던 교통기관에는 승용차, 택시, 버스가 있고, 비행기라고 알고 있던 교통기관을 여객기, 전투기 등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게되며 각각의 기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통기관이 없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알아보고 교통기관의 고마움과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통기관 알아보기 경험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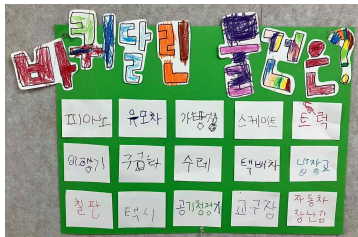
이건 2층  
주차장이야.  
자동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자동차가 높기 때문에  
손잡이도 높이  
달려있어야해!

이전에는 단순히 자동차를 표현했다면  
교통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주차장 놀이, 방지턱, 높고 복잡한 구조의  
자동차 등 좀 더 세밀하고 발전된 표현이  
나타나며 확장된 놀이를 했습니다.

## 데굴데굴 굴러가는 바퀴를 찾아보아요

- ▶ 교통기관에 달린 바퀴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바퀴 달린 물건을 찾아보며 '바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퀴처럼 동그란 모양의 장난감을 찾아보고 바퀴를 만들어보며 우리 반에서 바퀴달린 물건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바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왜 동그란 모양인지,  
다른 모양이면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며 바퀴의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퀴달린 물건 찾아보며 생각모이기>



<동그란 바퀴 모양을 몸으로 표현해보기>

## 썩썩 자동차 놀이를 해요

▶ 놀잇감 자동차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놀잇감이 미술 도구가 되자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며 자동차를 썩썩 굴려 멋지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자동차 바퀴 길을 보며 바퀴의 모양과 친구들의 자동차가 어디로 지나갔는지도 살펴보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미니카도 타며 오고 갈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썩썩 타보았습니다.



## 칙칙폭폭 기차가 지나가요

- ▶ 몸튼튼반 유아들은 칙칙폭폭 기차에 관심을 가지며 기차와 기차길을 만들고 라이트테이블에 우리동네 기차길을 만들며 놀이하였습니다.  
기차 놀이에 폭빠진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 기차길 만들기 놀잇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 몸튼튼반 유아들은 기차길 교구를 이용해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차길, 사거리 기차길, 움직이는 기차길, 터널 등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더해 멋진 기차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건물 교구로 우리집과 그 옆에 친구집을 만들어 몸튼튼 기차길 동네가 완성되었습니다.



## 교통안전규칙을 알아보아요

- ▶ 견학을 가기 전, 초록불이 깜박 깜박 하고 있으면 어떻게 건너야 할까? 내가 가지고 놀던 공이 자동차 안으로 굴러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교통안전규칙에 관한 궁금증을 품고 교통공원으로 왔습니다. 먼저 앉아서 교통안전규칙을 들은 후, 직접 알게 된 내용을 실천해보았습니다.
- 신호등을 기다릴 때는 노란선 안에서 기다리고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다음 번에 건너며 공이 차 안으로 굴러갔을 때는 다른 어른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유아들이 몸으로 경험하며 배우자 더욱 잘 익히며 즐겁게 교통안전규칙을 이해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통표지판을 만들어요

▶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교통표지판의 의미와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표지판의 중요성을 알게 된 유아들은 몸튼튼반에서 위험하거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안전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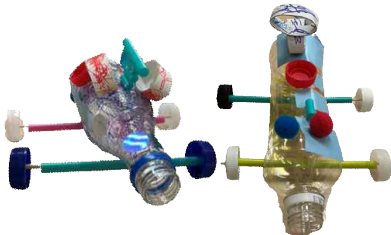
표지판을 만들자 약속을 지키며 더 안전하게 놀이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불어 위험해보이는 장소를 찾아 스스로 안전표지판을 만들어 붙여보며 유아들이 위험을 발견하고 대처하려는 자세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썩썩 자동차 대회를 열어요!

- ▶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오이를 실어 나르는 택배차, 경찰차, 구급차, 상어차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싶은 자동차가 정말 다양합니다.
- 친구들이 만든 자동차를 보며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을 공유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 내가 만든 멋진 자동차를 뽐내기 위해 "썩썩 자동차 대회"도 열어 나의 멋진 자동차를 뽐내보는 경주대회도 해보았습니다.



상어 자동차

경찰차



### '고마운 교통기관' 놀이를 하고 난 후

몸튼튼반 유아들이 자주 놀이하던 교통기관을 주제로 놀이가 전개되자 이전 놀이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 점차 복잡하고 발전된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많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기르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교통기관' 주제를 통해 몸튼튼반 유아들이 주변의 다양한 교통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기대합니다.